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1/13~2/3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제가 간 랑가라 컬리지는 다운타운과는 거리가 있지만 주거지역과 인접해 등교하기 괜찮았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으며 시설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빌 행사같이 행사가 많은 분위기이며 다들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 자리찾느라 오래 서있게 되니 점심되면 친구들과 호다닥 가서 자리 찾는걸 추천해드려요
수업	조금 말이 많았던 수업입니다. 처음엔 한국과 다른 교육방식으로 신선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수업으로 나중에 갈수록 지루해졌고 수업방법은 글로벌대학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영어회화수업과 아주 흡사합니다. 분반은 없고 강사님은 계속 한분이 전담하시는데 아주 친절하시고 정말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주시는게 보이는데 조금 아쉬운건 살짝 거리를 두는게 아쉬웠습니다. 수업준비같은 경우는 큰 바인더를 하나 주는데 그것만 이용해서 수업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고 항상 방가w후에 다운타운에 가서 책은 교수님께 양해를 받고 당일 숙제만 떼어가는 형식으로 교실에 보관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엑티비티로는 그랜빌아일랜드, 아쿠아리움, 박물관, 컬링등이 있는데 추가비용은 일체 없었고 내용은 그냥 그 지역 탐방정도 있었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엑티비티는 컬링인데 하기전에는 무슨 컬링까지 하냐고 중얼 거렸다가 하고나서 또 찾아와 하고싶은 정도였고 그랜빌아일랜드는 워낙 지역자체가 이쁘고 버스킹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과 박물관은 생각보다 작아서 금방 관람이 끝났고 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같은 경우 주변에 킷실라노나 스탠리 파크가 인접해 있어서 바로 놀러가기 좋았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제가 갔을 때 한국의 가을이나 늦가을 날씨라고 해서 청자켓하나 들고갔다가 양털자켓 하나 사버렸습니다..(이득) 암튼 날씨는 유니클로히트텍으로 무장하고 목도리만 해도 건디는 쾌청한 날씨이고 아니면 코트만 입어도 충분한 날씨입니다. 마지막주에 가는 케필라노브릿지도 계단 오르내리니까 열나서 그렇게 꺼입고 가지 않아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겨울엔 비나 눈이 많이온다는데 제가 갔을땐 운 좋게도 날씨만 좋아서 유의할점은 모르겠습니다
안전	다운타운에 가면 생각보다 홈리스들이 진짜 많은데 돈달라하면 주지말고 그 돈은 버싱하시는데분들에게 드립시다... 특히 가스타운가면 일단 거리에 마리카나 냄새가 엄청나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 진짜 많으니 낮에 다니는걸 추천합니다 물론 밤에 조명등이 이쁜긴 하지만 안전에 대해 예민하신분들은 조심하세요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홈스테이.. 정말 홈페밀리에 따라 갈리는 요소인데 저는 최악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깝고 밥도 잘해주고 점심도 잘 싸주는데 저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겁나 부실하고 저녁도 그 집은 겁나 일찍 먹어서 집에서 저녁 한번 먹어봤습니다 키키 시설은 그냥 일반 가정집인데 홈스테이라고 다 잘사는 집안 아닙니다.. 제 집은 자기 싱글맘이라고 겁나 아껴대서 런치백 이주일동안 재활용하고(정작 홈맘은 파티다님) 규칙 겁나 많아서 솔직히 스트레스였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집 안 규칙이니까 존중했고, 분위기는... 제 홈페밀리같은 경우 8시면 자서 분위기 잘 모르겠습니다 유의사항은 불만이 생기면 홈페밀리한테 말하고 안고쳐지면 무조건 홈스테이 오피스 가서 말하세요 음식값고 장난치는 홈페밀리 많으니까 하..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홈스테이 / 매뉴 요거트 혹은 시리얼(나중엔 오피스에 말하니 식빵 한조각과 과일 추가) 점심-도시락 or 서브웨이 / 매뉴 3주동안 샌드위치(요리하려니까 주방쓰는거 싫어해서 못함) 저녁-외부식당 / 사무라이 스시 제발 꼭 가시고 다운타운에 식당 정말 많습니다.

교통	일단 대중교통으로 55분 걸리고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여서 대중교통 이용했는데 밴쿠버가 대중교통 진짜 진짜 쉬워서 그냥 버스 두 번 타고 다녔습니다. 너무 편리한게 도로가 애초에 체크무늬마냥 있어서 가로노선 하나 세로노선 하나씩 타면 학교 도착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식사		
		출국전에 캐나다돈 800달러(한화 약 65만원) 환전했는데 다 쓰고 카드로 30정도 더 쓰고 왔습니다. 저는 점심 저녁을 밖에서 사먹어서 식사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아울렛이 정말 싸니까 쇼핑 많이 하실분들은 넉넉히 환전해 오세요 선물로 아이스와인, 아이스와인초콜릿(진짜 존맛), 메이플 쿠키,시럽 뱃지나 마그넷 엽서 등이 좋습니다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홈스테이랑 메일 꼭 해서 가져가야할 것(헤어드라이기나 수건) 알아두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솔직하게 홈스테이 때문에 정말 망칠뻔한 캐나다 생활 친구들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여행이 아닌 생활을 하러 간것이라 한국과 비교하여 많은 문화등을 알게되었고
 캐나다 살기는 좋지만 한국만큼 편의가 잘되어있는곳은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정말 좋고 기회생기면 워킹홀리데이라도 가고싶은 심정입니다
 캐나다 지원하실분들 무조건 랭가라 하세요(그땐 홈스테이 문제 나아졌길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첫 야외수업 그랜빌 아일랜드 밤이 제일 이뻐습니다	박물관 유익했던 내용도 많고 실제로 입어볼수 있는 옛날 옷이나 전시등이 잘되어있습니다
	
컬링 진짜 재밌고 생각보다 몸보다 발이 시려우니 두꺼운 양말 신으세요	아쿠아리움 생각보다 작지만 용도가 관광이 아닌 동물보호라서 의미있게 봤습니다



케필라노브릿지
고소공포증 있으신분들은 사전에
말하시고
진짜 자연경관 잘 보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모습
가는건 홀수인데 책상배치는 짝수라
맘이 아프지만 재밌었습니다!